

광주시, AI컴퓨팅 센터 2차려 유찰에도 이유 있는 자신감

경쟁 하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 입지 조건 뛰어나
이재명 대통령, 광주 AI중심도시로 확장 공약도

광주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정부가 공모한 국가AI컴퓨팅센터(센터)가 두차례 유찰됨에 따라 사업변경이 거론되고 있으나, 경쟁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 광주시의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광주를 AI중심도시로 확장하고 고성능 GPU를 집중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다.

16일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한으로 재공고 된 센터 공모사업이 유찰됐다. 지난달 30일 1차 유찰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 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꼽혔던 센터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51:49의 지분을 나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비수도권에 대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구축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해 신청을 하는 구조다. 당초 100개에 달하는 업체가 사업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한 개 업체만 지원하더라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불발됐다.

업체들은 가장 큰 걸림돌로 2조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을 꼽았다.

또 공공 지분율이 51% 이상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등 공공기관 수준의 의무를 지어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회사 미설립시 잔존 재산을 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조항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손실이 어려운 경우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조항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업체에서는 특정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을 하려했지만, 정권교체시기에 공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변동 가능성을 예견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업체와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센터사업 이번 공모는 유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셈이다.

과기부는 이후 센터 사업을 정부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같은 동향에도 국가컴퓨팅센터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AI집중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도.

전국 지자체들이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선도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추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다른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센터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집적도, 냉각 용수 등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공모사업이 유찰됐지만, 광주 외에 대구와 춘천 등이 가세하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대구는 부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춘천은 소양강 댐의 냉각용수 사용의 용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포항 등의 타 지자체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북구 첨단 3지구에 이미 'AI 집적단지' (4만7246㎡)를 조성해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AI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인재 육성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도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6기 교육과정의 교장을 맡아 광주의 강점과 장점을 꿰뚫고 있다.

당장,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센터 사업수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과기부가 센터 사업의 수익성 등을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변경을 통해 신규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박형주 광주시 AI반도체 과장은 "센터 조성 입찰이 가능한 국내 기업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센터 입지로 타 지자체보다 최적지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대통령 G7 참석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외교 무대 첫 발
16~17일 G7정상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하며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켈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실질적인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한 대화하기보다 관계를 진전시키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자리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세 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개최됐다. 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기획분과) 정태호(경제1분과) 이춘석(경제2분과) 이혜식(정치행정 분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고, 사회1분과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외교안보분과는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리얼미터, 이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 잘한다” 58.6%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높았고 문재인(81.6%)·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5.8%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함'이 59.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